

石國墓 출토渤海三彩女俑의 복식 연구

김민지·이순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s of Two Women Statuettes Made with Three Colored Ceramic Parhae Dynasty, Excavated from a Tomb in Shiguo(石國)

Min-Jee Kim · Soon-Won Lee*

Graduate stud., dept. of Clothing & Testiles, Seoul Nat'l Univ.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stiles, Seoul Nat'l Univ.*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costumes of two statuettes of standing women made with three colored ceramic excavated from Parhae tomb in Shiguo(石國), Chilin province(吉林省), China. These statuettes wear similar clothing: a narrow sleeved under-blouse with a decollette neckline and a long skirt tied above the bosom. But their hairstyles are quite different: one has a bun on the top of the head which tipped slightly forward, the other has two buns with two loops near ears. Their shoes are a little different: in the former the top of the shoes are a little crooked, but in the latter they are high-fronted and more crook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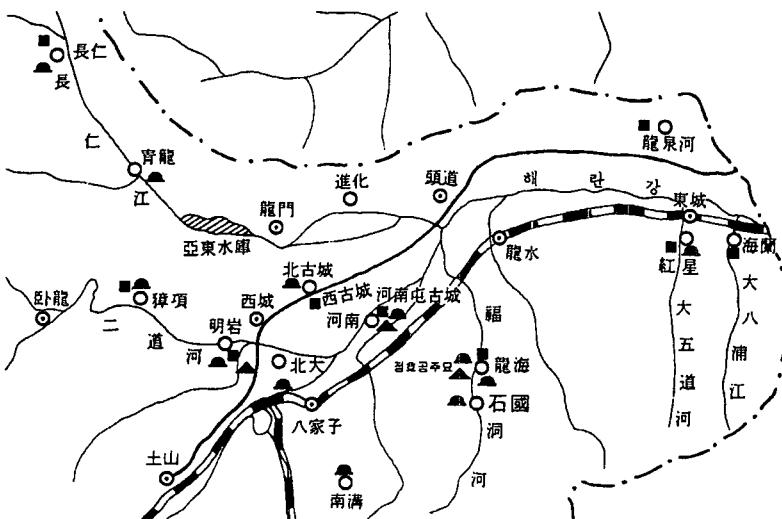
These two statuettes are valuable and unique source which demonstrates the female costumes of Parhae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which accounts for the acceptance and assimilation of costumes of Tang dynasty. Base upon the analysis on their costumes, hairstyles, and their expressions of the body shape, two statuettes seem to be made after the early 8th century.

Key Words : 발해(Parhae), 여용(female statuettes), 복식(costume), 머리모양(hairstyle), 신발(shoes)

I. 서 론

1998년 길림성(吉林省) 화룡시(和龍市) 용두산(龍頭山) 부근의 석국(石國)(그림 1) 발해묘에서 삼채(三彩) 여용(女俑) 4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중 두 점(그림 2, 3)이 1999년 8월~10월에 걸쳐 북경(北京) 역사박물관(歷史博物館)에서 개최한 '전국 50주년 기념 中國文物事業五十年(1949-1999)' 특별전시 행사에 공개되었고¹⁾, 최근 학술지에도 한 점이 소개되었다²⁾. 필자는 1999년 10월 13일~15일



<그림 1> 石國 위치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 p.436을 기초로 재작성, ■성터 ▲고분군 ▲ 절터)



<그림 2> 石國墓出土 渤海女俑 1(『國之瑰寶』 p.242)

에 걸쳐 전시를 참관하여 이 유물들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석국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女俑 2점 외에 교태자침(攬胎瓷枕) 1점, 도금관환(鎏金棺環) 2점이 전시되었다. 이 유물들은 현재 길림성 연변박물관(延邊博物館)에 소장 중인데³⁾ 발굴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930년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발해고분이 발굴되는 과정에서 삼채 도기물(陶器物)이 발견된 이래 일상생활용기 및 건축재료의 범주에 속하는 발해의 삼채물은 꽤 발견되었지만⁴⁾,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



<그림 3> 石國墓出土 渤海女俑 2

는 삼채 도용은 이번에 처음 발견되었다. 여용이 발견된 석국지역은 발해시기 왕실 및 귀족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용두산 고분군의 하나로, 석국에서 북쪽으로 따라 가며 용해(龍海)묘, 정효공주(貞孝公主)묘, 용호(龍湖) 고분군이 차례로 있고, 서쪽에는 팔가자(八家子), 북대(北大) 고분군과 발해 5경(京) 중의 하나인 중경 현덕부의 소재지로 비정되는 서고성(西古城)이 있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석국묘는 발해가 중경에 도읍하였던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발해 왕실 혹은 귀족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여용이 발해시기의 것으로 편년되는 데 별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보고서가 공개되면 무덤의 양식, 규모, 주인공, 출토유물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발해 시기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처음 공개된 것이므로 자료적 가치와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어 이에 여용 두 점의 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여용의 개괄적 검토

1. 삼채에 관하여

삼채는 유약을 발라 비교적 저온에서 구워낸 도기를 지칭한다. 유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보통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바르게 되어 삼채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하나 혹은 두 종류의 유약을 바른 도기는 '단채(單彩)' 혹은 '이채(二彩)'라 명명하기도 한다. 유약을 바른 도기를 생산한 것은 이미 한(漢)대에 시작되었으나, 당(唐)대의 유물로 전해지는 것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당삼채(唐三彩)'로 알려져 오늘에 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시 당삼채는 주변 제국에 수출되기도 하였고, 각지에서 모방해 제조하기도 하였다. 8~9세기에 제작되었던 신라삼채, 발해삼채, 일본의 나라(奈良)삼채 및 페르시아삼채 등이 그 예이다.

당삼채의 제작과정은 고령토 채취(採泥), 도세(淘洗), 태토의 제련(煉土), 배 만들기(製坯), 성형(成形), 그늘에서 건조(陰乾), 초벌구이(素燒), 유약 도포(上釉), 두벌구이(燒成)를 하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운반하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고령토의 산지는 삼채의 질을 감정하는 데 중요한데, 양질의 태토(胎土)는 세밀한 순정(純淨)의 고령토로 철분 함량이 0.5%정도로 적어야 한다. 초벌로 굽는 온도는 약 1000°C정도이다. 초벌구이 후의 색은 주로 백색, 혹은 태토에 따라 분홍빛을 띠기도 한다. 그 위에 흰색의 화장토(化粧土)를 칠하고 투명한 유약을 바르면 유백색 혹은 미백색을 띤다. 그 후, 다시 각각의 색채를 발현하는 금속성분을 첨가한 유약을 발라 색채를 나타내게 되는데, 유약에 적

양의 산화동을 가하여 두벌구이 하면 녹색을, 산화철을 가하면 황갈색을, 산화코발트로는 남색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그 정도에 따라 황색 계열이라 하여도 옅은 황색에서 짙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으며, 녹색에도 옅은 연두에서 흑록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이 가능하다. 또한: 유약 중에 함유된 납(Pb)은 조용제(助溶劑) 역할을 하여 두벌구이 온도를 저하시키고, 광택을 떨하게 한다⁵⁾.

이상을 참고해 보면, 석국묘 출토 여용은 전체적으로 흰색 화장토를 칠하였으며, 두발에는 검은 색을 칠하였고, 의복 부분에는 황갈색과 녹색을 발현하도록 유약을 도포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용 1의 저고리 부분은 옅은 황갈색을 띠고 있고, 치마 부분에는 황갈색의 유약이 흘러내려 녹색과 섞이고 있으며, 신발은 황갈색에 가깝다. 여용 2의 저고리는 녹색의 유약을 칠하였고, 치마 부분에는 저고리에 바른 녹색의 유약이 흘러내려 황갈색과 섞이고 있으며, 신코가 올라간 신의 바닥에는 다시 녹색이 선명하다. 한편, 여용 2의 얼굴 부분은 흰 칠을 한 것이 일부 벗겨져서 붉은 태토의 빛깔이 드러나 있다.

2. 여용의 제작 및 부장(副葬) 목적

발해의 삼채용이 제작된 목적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남긴 문헌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하지만, 당삼채용의 제작 목적과 그다지 다른 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당시 당의 예를 참고하고자 한다.

당삼채에는 그릇류 외에 용(俑)류가 많다. 주요한 것은 부장용 명기(明器)인데, 이것은 당시 귀족, 관료, 지주, 상인 및 일반민간에서 유행한 후장(厚葬)풍습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후에도 이승에서의 생활이 연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위(護衛)에서부터 시종, 먹을 것, 마실 것, 놀이 기구, 악기, 화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꽃, 산수 등 자연물까지 실물이 없으면 모형으로 만들어 부장하였다. 「大唐六典」과 「唐會要」에는 厚葬풍습이 지나쳐 명기의 수량을 제한한 기록까지 보이고 있어⁶⁾ 당시의 후장풍습은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후장을 위한 당삼채의 수요가 절

대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채의 원료가 되는 태토의 산지에 공방이 발달하고, 전문적인 생산라인과 운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당삼채 산업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출토 물 중에는 제작기법은 물론 인물의 표정과 자태까지 유사한 일련의 용(俑)들이 있어⁷⁾ 당시 삼채물이 대량 생산되었을 가능성까지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석국묘에서 출토한 여용 및 배개(撓胎瓷枕)는 죽은 이(死者)의 저승에서의 생활과 관련해 부장한 품목으로 여겨진다. 이미 발해시기의 삼채물로 출토된 것 중에는 일상생활용품이 꽤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발해의 삼채 유물을 정리, 분류하고 그 수요층과 사용시기에 대해 추측한 馮浩璋의 논문에 의하면, 발해의 삼채물은 일상 생활용품과 건축재료로 대별되며, 삼채 출토지가 주로 경성(京城)의 궁전 유적인 것으로 보아 삼채의 실수요자는 발해 왕실과 귀족계층이며, 삼채가 주로 사용된 시기는 문왕(文王) 대흥무(大欽茂) 시기와 그 이후로 한정된다고 한다⁸⁾. 발해는 문왕 시기 이후 당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으므로 발해의 귀족계급에서 명기를 후장하는 풍습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3. 여용의 제작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당대(當代)의 회화, 인물용(俑) 등의 자료에는 당시의 복식이 반영되어 표현된다. 심지어 인간이 아닌 삶이지상에서도 당시의 복식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용으로부터 당시의 복식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복식 논의에 앞서 이 여용 두 점이 당에서 제작되어 발해로 유입된 것인지 발해에서 자체 생산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출토된 발해 삼채물의 제작지에 관한 문제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해왔다. 하나는 '발해 생산설'이며, 다른 하나는 '당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만일 이 여용이 발해인의 수요에 의해 당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라면 여용의 복식은 당의 복식이 표현된 것이다. 반대로 여용이 발해에서 제작된 것이라면 여용의 복식 역시 발해의 복식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용의

복식이 당의 복식인지 발해의 복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검토가 복식 고찰에 앞서 전체되어야 한다. 복식의 양식을 검토하여 이 여용이 당의 것인지 발해의 것인지 검토하는 일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발해 측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발해의 복식양식을 규정해 내세울 수 없고, 설령 자료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고대의 복식은 융합과 변용이 무수히 이루어져 왔고 각 시점마다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복식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양식을 구분해 무엇이 당 양식이고 무엇이 발해의 양식이라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도용의 제작 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에 의거해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발해삼채의 자체 제작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상경(上京) 유적에서 출토된 삼채물의 태토와 유약을 '중원산'과 '발해산'의 두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태토의 질이 섬세하고 순도가 높으며 태토의 색이 백색이고 유약의 색이 선명한 것은 중원산이고, 태토의 질이 비교적 떨어지고 모래입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유약의 색은 어둡거나 혹은 황색을 띠는 것들은 발해에서 생산한 것⁹⁾이라는 견해였으나, 검토 방법이 관찰에 의한 것으로 이렇다 할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山岐一雄과 郎惠云·三辻利一 등은 삼채의 태토와 유약의 성분 분석을 시도하였다. 山岐一雄은 발해삼채와 당삼채는 원료 성분과 제작 공예상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¹⁰⁾, 郎惠云·三辻利一은 발해삼채, 당삼채, 나라삼채의 제작지에 따른 태토 및 유약의 성분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¹²⁾. 또, 최근 馮浩璋는 발해삼채의 중원 수입설¹³⁾과 자체 생산설¹⁴⁾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검토하고, 발해삼채를 종류별로 분류해 중원에서 제작된 것과 양식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였으며, 발해의 조공 품목에 삼채 관련 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문헌기록¹⁵⁾ 등을 검토하여 결론적으로 발해 본지에서도 삼채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¹⁶⁾. 그가 지적한 중원산과 구별되는 발해삼채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발해삼채에 남색

의 색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상경 유지에서 발견되는 연대(硯臺)와 중원의 연대는 양식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원의 것과 양식상 유사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원산이라고 분류하고, 다른 양식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발해산으로 분류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중원의 것과 유사한 양식을 발해에서 모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988년 북대 7호묘(M7)에서 발견된 삼채그릇 1점(그림 15)¹⁷⁾은 당의 유물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감정결과 발해에서 생산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¹⁸⁾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발해에서도 삼채물을 꽤 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에는 중원에서 생산한 것과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 수준의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토된 삼채물의 제작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식의 분석과 함께 성분의 분석을 병행해야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당삼채라 하더라도 태토를 채취하는 지역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으므로, 당삼채와 발해삼채의 태토의 성분 차이를 규명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의 반복된 시도를 통해 제작지별 삼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아울러 석국묘 출토 여용에 관한 성분 분석이 이루어질 때 이 문제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추후에 여용의 태토와 유약에 관한 성분 분석이 시도되기를 기대하며, 현재로서는 이 여용에 특별히 중원의 수입품이라고 할 근거가 없는 한 발해의 복식이 표현된 공예물로 간주하고 복식을 고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III. 여용 두 점의 복식

편의상 왼쪽에 전시되었던 것을 '여용 1', 오른쪽에 전시되었던 것을 '여용 2'라 칭한다. 여용 1과 2가 착용한 의복은 저고리와 치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형태는 거의 차이가 없다.

1. 유(襦·衫·衣)와 군(裙·裳)의 명명(命名)

의복 각 부분에 관한 명칭은 당시의 문헌기록에

의거해 명명해야 하지만, 발해족의 문헌기록이 없어 연결짓기가 어렵다. 주변국의 기록을 참고하면, 부녀가 착용한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衣(短衣, 內衣)', '襦', '衫'이 있으며, 치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裙', '裳(表裳)'이 있다. 唐 牛僧孺의 『玄怪錄』에는 "小童이 받든 상자 안에 古來의 青裙, 白衫子, 綠帔子가 들어있었다"¹⁹⁾"라는 기록이 있고, 前蜀 杜光庭의 『仙傳拾遺』 許老翁에 唐시기 益州上 曹柳某의 처 李氏가 "黃羅銀泥裙, 五趾羅銀泥衫子, 單絲紅地銀泥帔子는 대개 益都의 盛服이다"²⁰⁾."라 한 기록이 있다. 이 두 기록은 당(唐)대 일반 부녀자나 귀족 부녀가 비록 재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삼(衫), 군(裙), 피(帔)를 기본적으로 착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²¹⁾. 또, 唐 元稹의 『白衣裳』 詩二의 "순백색의 衫과 아황색의 裙이 부질없이 짙은 향을 띠어 火熏을 자아내는구나"²²⁾"와 唐 陳子良의 『新成安樂宮』 詩에 "衫은 袅아 자못 해를 꺼리고, 裙은 가벼워 더욱 바람을 두려워하네"²³⁾" 구절에서도 저고리와 치마를 삼(衫), 군(裙)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新唐書』 車服志에는 "부인의 裙은 5폭을 넘지 못하고, 땅에 끌리기를 3촌을 넘지 못하며, 裳의 소매는 1척 5촌을 넘지 못한다"²⁴⁾"이라는 기록이 있어 부인의 저고리와 치마를 유(襦), 군(裙)으로 기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唐 溫庭筠의 『菩薩蠻』 詞 一의 "새 繡羅襦엔 雙雙의 金鷗鵠"²⁵⁾"라는 구절에도 유(襦)가 보인다.

용강동 출토 통일신라 여용의 치마, 저고리는 『三國史記』 雜志 色服條의 내의(內衣), 단의(短衣)와 표상(表裳)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발해 석국묘 출토 여용의 그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상의 용례(用例)로 보아 저고리는 '의(衣)', '유(襦)', '삼(衫)', 치마는 '군(裙)', '裳(裳)' 중 어떤 것을 택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삼(衫)'과 '유(襦)'는 특히 『舊唐書』 與服志에 "白裙襦 亦裙衫也"라는 내용이 천자(天子)의 혼연복(玄冕服)과 변복(弁服), 시신(侍臣)의 조복(朝服)과 공복(公服) 규정에 보이고 있어 당시 양자가 통용되었거나, 유사한 개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사전적인 의미

로 삼(衫)에는 '흘저고리'²⁶⁾, '소매끝이 없는 옆터진 저고리'²⁷⁾라고 정의되어 있어 삼(衫)보다 유(襦)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치마에 해당하는 용어도 『新唐書』車服志의 기록에 따라 '군(裙)'으로 명명한다.

2. 유(襦)의 깃(領) ; 직령(直領)과 반령 (盤領·圓領·團領) 가능성

여용 1과 2의 목둘레선은 가슴까지 내려와서 비교적 노출이 심한 '단흉(袒胸)'의 형식이다. 단흉은 남북조시기 출현하여 중당(中唐)²⁸⁾ 이후에는 주춤하였다²⁹⁾. 특히 측천무후가 황제가 된 후 당시 사회분위기가 여성에게 개방적이었던 분위기를 틈타 유행한 것으로 보는데³⁰⁾, 이 때 부녀자는 먹리(羈離)는 물론 유모(維帽)도 쓰지 않고 외출할 수 있었음³¹⁾은 물론이고, 유(襦)의 목둘레선이 아래로 내려가 가슴을 노출하고, 대신 군(裙)의 허리선이 가슴위치로 높이 올라가 여미는 형식이 되었던 것이다. 여용 두 점의 목둘레선도 치마의 여밈선에 당는 위치까지 내려가 있다. 이 때문에 여용이 착용한 유(襦)의 깃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교임(交衽)의 직령(直領)³²⁾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이지만, 반령(盤領)³³⁾일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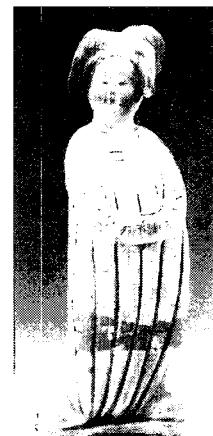
1) 곧은 깃(直領)일 가능성

당대 도용 및 회화자료에 보이는 유(襦)의 주된 깃 모양은 곧은 깃이다. 서안(西安) 중보촌(中堡村) 출토 여용(그림 4)이 착용한 유(襦)의 깃은 V자형의 직령이 분명하게 묘사되었으며, 광국부인유 춘도(虢國夫人游春圖) 중 귀부인 및 서안(西安) 고루촌(高樓村) 출토 여용(그림 5)과 경주 용강동 출토 통일신라 여용 3점에서도 11자형의 직령유(直領襦)가 보인다. 이에 비해 여용 1과 2의 유(襦)는 목둘레선이 둥글게 몸의 선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 언뜻 보아 둉근 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곧은 깃의 유(襦)가 자연스럽게 몸의 선을 따라 내려온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을 수도 있다. 묘사된 형태를 그

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복식의 형태를 유추해 판단하여야 할진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직령의 유(直領襦)일 가능성성이 있다.



<그림 4> 唐陝西西安中堡村 출토 여용
『隋唐文化』 p.116)



<그림 5> 陝西西安東郊高樓村 출토 彩繪女俑
『隋唐文化』 p.197)

2) 둉근깃(盤領 : 圓領 : 團領)의 가능성

당의 회화자료에는 반령 유(盤領襦)의 형태도 종종 보인다. 이진(李震)묘의 희아도(戲鵝圖)와 장회(章懷)태자 이현(李賢)묘의 앞 연도(羨道) 서벽에 묘사된 시녀도(侍女圖)에 반령유(盤領襦)가 보이며, 이현묘의 시녀가 착용한 반령유는 단흉의 정도가 심하다(그림 6). 호남(湖南) 장사(長沙) 함가호 소학(咸嘉湖小學) 1호묘에서 출토된 당(唐) 청자기

악용(青瓷伎樂俑)도 단홍의 반령 착수유(窄袖襦)에 가슴 부위 혹은 가슴 위까지 끌어올려 여민 치마를 입고 있다³⁴⁾. 그 외에 섬서(陝西) 건현(乾縣) 의덕(懿德)태자묘 석파(石櫛) 선각화(線刻畫)에는 단홍의 반령 대수포(大袖袍)가, 섬서 서안 동교(東郊) 왕가분(王家墳) 당(唐)묘에서 출토된 여용에는 반령의 단홍 반비(半臂)가 착장된 모습이 보인다³⁵⁾. 당대에 이러한 반령 의(盤領衣), 반령 포(盤領袍), 반령 반비(盤領半臂)가 존재하였으므로 발해 여용의 상의에서 둑글게 내려오는 목둘레선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반령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6> 唐 李賢墓 侍女圖(『中國唐墓壁畫集』 p.112)

3. 군(裙), 군대(裙帶)

여용 두 점의 치마는 허리선이 가슴 위까지 올라가 끈으로 여며졌다. 길이는 바닥에 끌릴 정도인데, 여용 2의 치마가 더 길다. 특징적인 것은 앞·뒤 중심선과 양 옆선에 세로의 선이 보이고, 중심선과 옆선의 사이에도 정확한 비례로 세로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 점이다. <그림 4>의 당(唐) 도용이 착용한 군(裙)에도 8개의 선을 새긴 자국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림 5>의 섬서 서안 동교 고루춘 출토 여용은 여러 개의 세로 선으로 풍성한 치마의 주름을 묘사하였다. 이 선을 치마의 구성 선으로 고려한다면 앞 4폭, 뒤 4폭 합 8폭의 군(裙)으로 파악되지 만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新唐書·車服志에』 “부인의 裙은 5폭을 넘지 못한다(婦人裙不過五幅)”

라 하였으며, 당대 출토 직물의 예를 보면 대체적으로 1폭의 길이가 53-54cm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너비의 폭을 8폭을 잊게 되면 430cm 정도가 되어 그림과 같은 실루엣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치마의 선이 의복의 구성선을 표현한 것이라면 직물의 폭을 조개어 재단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8줄의 선이 치마의 구성과 상관없이 그려 넣은 것이라면 신강 투르판 아스타나에서 출토된 백화(帛譜)(그림 7)에 묘사된 사녀(仕女)의 군(裙)에서 보이듯이 넉넉한 스타일로 꼭 8폭이 아니더라도 수 폭의 직물을 이어 붙여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7> 新疆 투르판 아스타나 출토帛譜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p.223)

군(裙)의 상단(上端)에는 가늘고 긴 대(帶)로 여며 그 나머지를 드리운 것이 보인다. 唐 李端의 『拜新月』詩 중 “속삭이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며, 北風이 裙帶를 불어젖히네³⁶⁾”라는 구절에 바람이 불어 치마의 끈이 날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치마의 끈은 군대(裙帶)라 할 수 있으며 가늘고 긴 끈이 드리워짐으로써 여용의 자태가 단아하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군대는 <그림 4>의 여용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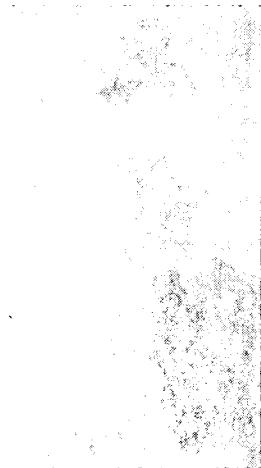
4. 착장 방식

착장방식의 특징적인 면은 ‘유(襦)를 군(裙) 속

에 넣어 입는 스타일'이라는 점과, 당시 함께 착용되었던 반비(半臂)나 표(襍:領巾)가 보이지 않는 '유(襦)·군(裙)만의 간소한 차림'이라는 점이다.

1) 유(襦)를 군(裙) 속에 넣어 입는 스타일

여용의 유는 군 속에 넣어 군이 유를 덮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 당의 부녀자들이 유·군을 착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통일신라 시기 용강동 출토 여용의 저고리도 치마 속에 넣어 가슴 위에서 여며졌다. 이전 시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부인의 일반적인 착장 방식은 치마 위에 저고리를 덮어 입는 것으로 저고리의 길이는 대개 엉덩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襦를 裙 안에 넣어 착용했음직한 자료도 있다. 안악 3호분의 방아찧는 여인의 저고리·치마의 차림이 그러하다(그림 8). 이처럼 한 시대의 복식에는 주류적인 양식이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주류에 속하는 예도 존재한다.



<그림 8> 고구려 안악3호분 방아찧는 여인의 짧은 저고리-치마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부여의 도용에 이러한 착장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길림시(吉林省) 남성자고성(南城子古城)에서 출토한 부여의 도용³⁷⁾(그림 9)은 우임(右衽)의 저고리를 치마 속으로 넣어 착용하였다. 치마의 앞을 걸어 허리부위를 불룩하게 한 후(曲裙), 허리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군대(裙帶)를 묶어 아래로

드리웠다.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치마를 한 번 걷어 올려 묶은 것은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종종 보이는 것이다. 도용이 출토된 남성자고성은 부여의 왕성으로 지목되는 곳으로 변방이 아닌 부여의 중심부이고³⁸⁾ 머리 정상이 평평하게 묘사된 특징이 한(漢)대의 머리모양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도용을 부여의 유물로 볼 수 있다.



<그림 9> 吉林市 南城子古城 출토 부여 도용
(『吉林市志』文物志)

이 부여 여인의 저고리·치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인의 저고리·치마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저고리를 내어 입었는지 넣어 입었는지의 차이인데, 그것은 생활하는 가운데 착용 상황이나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저고리를 내어 입은 것이 대부분이고, 당(唐)대의 회화나 도용에는 저고리를 넣어 입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착용방식을 하나의 시대양식 요소로 보는 것이다.

여용의 유와 군의 착장방식은 당의 부녀복식의 수용이라는 동시대적 특징으로 보이지만, 종적으로 볼 때 부여시기의 착장방식과 고구려 시기 소수의 비주류적 존재 양상과도 맥이 닿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襦)·군(裙)만의 간소한 차림

여용 1과 2의 의복은 단흉(袒胸)의 착수유(窄袖襦)와 가슴 위까지 올려 군대(裙帶)로 묶은 군(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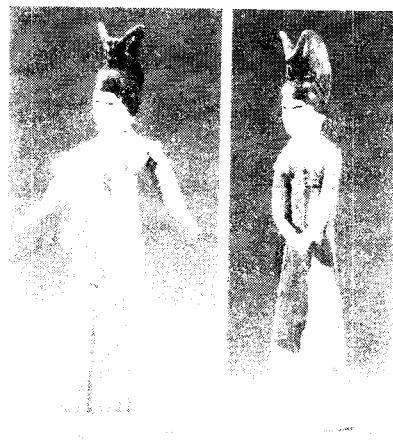
이며, 그 위에 반비(半臂)나 표(祫)를 두르지 않았다. 성당(盛唐 : 玄宗 開元 元年 : 713 - 代宗 永泰 元年 : 765) 이후의 부녀 복식은 반비나 피(帔:祫)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유와 군만 착용한 모습은 주로 수(隋)대에서 당(唐) 초기에 걸친 시기로 비정되는 유물들(그림 10)에서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인체는 상당히 가늘고 길게 표현되어 있어 양식상 차이가 있다. 또, 앞에서 본 <그림 5>는 전형적인 성당(盛唐) 시기 부녀의 모습으로 알려진 것인데, 여기에서도 착수의 유와 군만 착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군만의 간소한 차림을 시기적인 특징으로 논할 수는 없겠다.



<그림 10> 隋 開皇14년(594) 張盛墓出土 白釉女俑
(上海博物館所藏 『中國歷代陶磁展』, 図錄 No.23)

한편, 신강(新疆) 위구르자치주는 건조지대로서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종종 섬유류로 된 유물도 그대로 보존되어 공개되는 것이다. 투르판 아스타나 206호묘에서 출토된 당(唐) 니두목신용(泥頭木身俑)들(그림 11)은 유, 군에 반비를 입지 않고, 영건(領巾)을 둘렀는데, 직물로 제작해 입힌 의복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외에도 아스타나 206호묘에서는 신하용(彩繪宦者俑)이 직물로 된 단령포(團領袍)를 입은 채 파손되지 않고 출토되었으며³⁹⁾, 아스타나 187호묘에서 출토된 기마용(彩繪騎馬泥俑)⁴⁰⁾은 유모(維帽)의 차양(裙)이 실제의 소재로 사실적으로 제작되었고, 아스타나 201호묘에서 출토된 서리용(彩繪皂吏泥俑)

의 원쪽 옆구리에 긴 문서(文簿)도 사실적인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일부만 직물 소재를 사용해 제작한 여러 예들을 본다면, 석국묘 출토 여용의 반비나 표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직물로 제작되어 입혀졌을 가능성을 상정해봄직하다. 현재 출토된 흔적을 알 수 없어 확실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은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림 11> 唐 新疆 투르판 아스타나 206호묘 출토
彩繪女木俑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No.120,121)

석국묘 출토 여용의 유, 군 차림은 반비나 표를 착용하지 않아 비교적 덜 갖추어 입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역시 착용 상황이나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인다.

5. 머리모양

여용 두 점의 머리모양은 대체적으로 당과 같은 시대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당의 문헌에 기록된 머리모양의 명칭은 그 형태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여 머리모양의 명칭과 회화자료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1) 여용 1의 왜타계(倭堕髻) : 오만계(烏蠻髻) :
발총계(拔叢髻)

이마 위 정수리 부분에 상투를 조그맣게 매어 앞으로 드리운 것을 볼 수 있다. 옆머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치지면서 귀를 가리며 뒤 어깨로 이어져 드리워진다. 귀를 가린 옆머리는 빈(鬢)이다. 당·송대에는 빈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머리모양은 섬서 서안의 중보촌⁴¹⁾(그림 4)과 선우정회(鮮于庭晦)묘⁴²⁾, 소토문촌(小土門村)⁴³⁾, 남가촌(南何村)⁴⁴⁾ 등에서 출토된 일련의 당삼채 여용과 투르판 및 소사옥(蘇思勗 : ?~745)묘 출토의 사녀도(仕女圖)와 같은 회화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을 비롯한 전체 신체 묘사에 석국묘 여용보다 더 통통하고 풍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석국묘 출토의 여용이 상대적으로 멀뚱뚱하며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또, 당(唐) 도용들의 옆머리인 빈(鬢)은 귀 가운데 즈음에서 뻗쳐 잘린 듯하게 묘사되어 귀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않는 형태이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용의 머리 모양이 여용 1에 가장 근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해 명명한 바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周錫保는 『唐語林』의 “당말 부인이 빗은 ‘拔叢’이라는 머리가 어지러운 모양을 만들었으며, 눈까지 드리워져 가렸다⁴⁵⁾”라는 부분에 의거해 ‘발총계(拔叢髻)⁴⁶⁾’라 하였고, 沈從文은 ‘대계(大髻)⁴⁷⁾’라 하였다. 투르판 출토 사녀도의 머리모양은 ‘속발평계(束髮半髻)’라 설명되었으며⁴⁸⁾, 중보촌 출토 용(그림 4)의 경우 ‘환발수계(鬟髮垂髻)⁴⁹⁾’라 하였다. 孫機는 “開元년간에 許景先이 撰한 『折柳篇』에 “寶釵를 장식하여 세로이 빗은 倾墮髻⁵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머리모양과 부합된다⁵¹⁾”고 하였다. 또, 周汛·高春明은 ‘오만계(烏蠻髻)’로 보았다⁵²⁾. 당(唐)인이 남방 소수민족인 이족(彝族)을 가리켜 오만(烏蠻)이라 하였고, 이들의 머리모양이 추계(椎髻)였는데, 당대 부녀가 추계를 변형시켜 머리 정상을 향해 빗어 올려 계를 만들어 앞에 드리운 것을 唐袁郊의 『甘澤謠』紅線에서 “아무개의 행실은 반드시 않은 바가 없었으니, 곧 閨房에 들어가 차림새를 꾸미면 烏蠻髻를 빗고, 金鳳釵를 꽂았으며, 紫綉短袍를 입고, 青絲輕履를 신었다⁵³⁾”라 한 바에 근거하여 ‘오만계(烏蠻髻)’로 설명하였다.

이 명칭들 가운데 ‘왜타계(倭堕髻)’, ‘오만계(烏蠻髻)’, ‘발총계(拔叢髻)’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히 명명하기

는 어렵다.

2) 여용 2의 쌍계(雙髻)

여용 2의 머리모양은 얼굴 양 측면에 고리(簪)을 아래위로 형성하며 가운데를 묶은 쌍계이다. 쌍계는 두 갈래로 나누어 상투를 맺는 머리모양을 포괄해 지칭하는 명칭으로 당(唐)대에는 시종(侍從)의 머리모양으로 많이 등장하며, 역대 중국의 회화, 벽화, 도용 등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그러나, 양 갈래로 나누어 상투를 맺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명칭도 다르다. 쌍계에 속하는 명칭으로는 아계(丫髻 : 丫頭, 鴉頭), 아환(丫鬟 : 丫環, 鴉鬟), 쌍아계(雙丫髻 : 雙髻丫, 雙角髻, 雙童髻, 總角), 쌍수계(雙垂髻), 쌍수수계(雙垂鬟髻 : 雙鬟後垂), 쌍환고계(雙鬟高髻), 쌍환망선계(雙鬟望仙髻), 관계(兜髻 : 卿髻) 등이 있다⁵⁴⁾.

여용 2의 쌍계에 비견될 만한 당(唐)측 자료로는 하문(廈門)대학 인류학박물관에 소장중인 도용과 섬서 서안 한삼채(韓森寨) 출토의 여용, 대만 고궁 박물원 소장 당인궁악도(唐人宮樂圖) 중 시녀의 머리모양(그림 12) 등을 들 수 있다. 하문대학 인류학 박물관에 소장 중인 도용의 머리모양에 대해 周汛·高春明은 ‘아계(丫髻)’라고 명명하였다. 아계는 아두(丫頭, 鴉頭)라고도 하며 머리 정상(頂上)에서 두 개의 작은 상투를 맺은 모양이 나무 가지모양의



<그림 12> 臺北 故宮博物院 소장 唐人宮樂圖 중 侍女
(『隋唐文化』 p.236)

丫자와 서로 닮았다 하여 이름지어진 것이다⁵⁵⁾. 이것만으로 여용 2의 머리모양에 아계(丫髻)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다. 쌍계 및 쌍환에 관한 다른 명칭들의 정의를 고려하여 굳이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자면 '쌍수환계(雙垂鬟髻)'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러한 명칭 역시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쌍계(雙髻)'라 칭한다.

6. 신발

여용 두 점의 신발은 끝이 위로 올라간 형태이다. 여용 2의 신 끝이 더욱 위로 올라갔다. 중국에서는 선진(先秦) 시기 이후 신의 끝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여 뒤로 젖혀지면서 신코를 장식하였다. 신 끝은 원래 갈라지지 않은 홀두리(笏頭履)였으나, 한(漢)대 이후에는 신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기두리(岐頭履)가 많이 보인다. 당대 부녀의 신 끝은 뾰족하기도 하고 네모자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여러 층으로 되기도 하는 등 양식이 매우 다양하였다⁵⁶⁾. 당대 부녀자가 일상적으로 신은 것은 '선혜(線鞋)'이며, 화려한 것으로 '금혜(錦鞋)'가, 가볍고 활동에 편리한 것으로 '포리(蒲履)'가 있었다.⁵⁷⁾ 『舊唐書』與服志에는 "武德(618~626)년간 이래 부녀자의 履에 엄중한 규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대 부녀자가 신은 신의 끝이 매우 높고 커서 그 높이의 정도를 규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문종(文宗 : 826~840)년간에 조(詔)를 내려 일반 부녀자에게도 고두리(高頭履)와 평두소화초리(平頭小花草履)의 작용을 허락한 기록이 『新唐書』車服志 및 『冊府元龜』에 보인다⁵⁸⁾.

당에서의 '고두리(高頭履)'와 '평두리(平頭履)'의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명명은 하기 어렵고, 다만, 석국묘 출토 여용의 신 끝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당의 자료(그림 7)에서 보이듯이 심한 편은 아니라는 것만 지적하겠다.

7. 색채

여용 1은 담황색의 유(襦), 녹색의 군(裙), 황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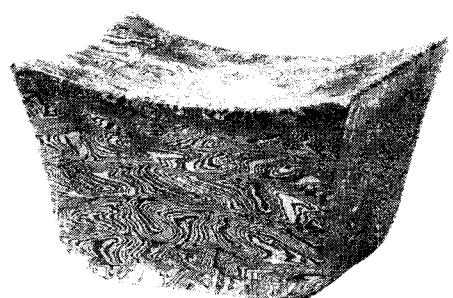
색의 리(履)를, 여용 2는 녹색의 유, 황갈색의 군, 녹색 리를 착용하였다. 각 여용의 치마 웃 부분에는 저고리에 도포한 유약이 훌러내려 색이 섞이고 있다. 그러나, 여용의 의복 및 신발의 색채가 실제 착용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삼채의 제작과정 상에서 유약에 첨가되는 금속원소에 따라 황갈색, 녹색, 남색, 자주색 등이 달리 표현되기 때문이다. 삼채용의 복식으로부터 실제 착용한 복식의 색채를 유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IV. 여용의 제작시기

이상 고찰한 여용의 '복식의 특징적 요소'에 부가하여 '여용의 인체표현의 특징', 그리고 함께 출토된 '교태자침(撓胎瓷枕)'의 제작 기법 등을 고려해 여용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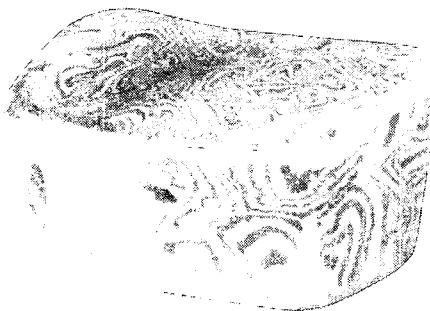
첫째, Ⅲ장에서 고찰한 복식의 특징들에는 당 복식의 수용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둘째, 함께 출토된 교태자침(그림 13)의 제작방법에도 당의 요소를 수용한 측면이 보인다. 교태(撓胎 : 紋胎)라고도 하며, 당대에 새로 생겨난 기법으로 2종의 색채의 흙을 계획적으로 섞어 제작함으로써 문양을 만든 것인데, 백색과 흑색을 조합한 것이 많다. 일반적인 삼채공예에 비해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섬세하다⁵⁹⁾. 당삼채 기물 중에는 교태로 제작된 그릇류와 화로, 배개 등이 수 척 있으며, 발해의 북대 7호묘(M7)에서도 교태로 제작된 삼채그릇(그림 15)이 출토되었다. 1956년 하남성(河南省) 섭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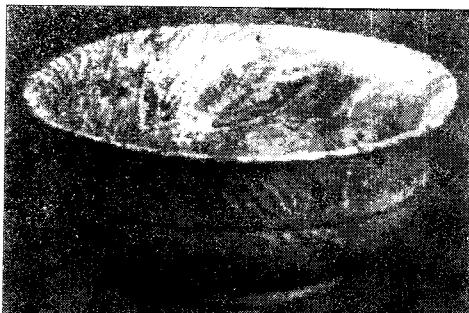


<그림 13> 石國墓 출토 밭해 撓胎瓷枕

(陝縣) 유가거(劉家渠) 1042호 당(唐)묘에서 출토한 황유침(黃釉枕)(그림 14)⁶⁰⁾과 상해(上海)박물관 소장 당(唐)대 자침(瓷枕)의 제작기법과 형태가 석국묘에서 출토한 교태자침과 유사하다. 1988년 북대 7호묘(M7)에서 발견된 발해의 삼채그릇은 8세기로 비정되는 동경(東京)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당(唐) 황유교태잔(黃釉絞胎盞)과 유사하다.



<그림 14> 河南省 陝縣 唐 劉家渠墓 출토 絞胎盞枕
(『中國通史陳列』, p.121)



<그림 15> 発海 北大 7호묘 출토 삼채그릇
(『文物』, 1994-1)

이로써 발해삼채의 제작에 중원에서 쓰이던 교태기법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역대 중국의 인물화에 보이는 여인의 모습 가운데 북조(北朝)~초당(初唐)에 이르는 시기는 '수골청상(秀骨青象)'의 수척한 모습이 주를 이루나, 성당(盛唐) 시기를 풍만한 여체가 등장하여 중당(中唐), 만당(晚唐) 시기를 거치며 그 정도가 극에 달하였다⁶¹⁾. <그림 10>의 가늘고 긴 인체와 <그림 5>의 풍만한 인체는 수(隋)~초당에 이르는 시기와 성당 시기의 인체표현 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석국묘 출토 여용들의 인체는 그다지 풍만하지도 여위지도 않았다. 얼굴의 선이 둥글게 묘사되었으나, 성당 전성기의 도용들에 비한다면 그 정도가 약하다. 성당시기 입술모양을 오므리게 표현함으로써 뺨이 더욱 살찌보이게 한 특징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시기에 유행한 화장법인 이마에 찍은 '화전(花鉗)', '액황(額黃)', 입가에 찍은 '검은 점(痣)', '보조개(粧靨)'와 눈썹화장인 '취미(翠眉)', '운미(暉眉)'와 입술연지, 뺨을 붉게 칠하는 것 등도 보이지 않는다. 머리모양, 의복, 화장 등의 측면에서 극에 달하는 표현은 볼 수 없고, 보편적이고 평면적이며 간소한 양식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여용의 인체표현 양식을 당대 유물에 비추어 그 시기를 비정해 본다면 '초당'에서 성당으로 이행하는 단계 혹은 '성당 초기(8세기 초반)'의 양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당(唐)의 경우 인체표현 등 성당 시기의 전형을 이루는 특징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기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현재로서는 미흡하고, 발해가 당의 문화를 흡수해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차도 고려해야 하므로, 당의 8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문화요소를 그대로 발해에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하여야 할 것 같다.

발해가 당의 복식문화를 언제부터 받아들였는가에 관해 문헌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남자 복식에 한정된다. 남자 복식의 경우 제 2 대 무왕(武王) 인안(仁安) 4년(唐玄宗開元 10년 : 722년)에 당으로부터 금포(錦袍), 금어대(金魚袋)를 사여받은 것⁶²⁾을 시작으로 이미 무왕의 시기에 발해 왕실에서는 당(唐)의 복제(服制)를 접하였고, 3 대 문왕 즉위 후 『大唐開元禮』를 수용하여 중앙집권적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당(唐)의 상복(常服) 규정에 준하는 복색(服色)제도와 어대(魚袋), 훌(笏)의 제도를 제정하였다⁶³⁾. 통일신라의 경우, 남자복식에 있어서 당 제도의 수용은 진덕왕(眞德王) 3년(649)⁶⁴⁾, 여자복식의 당 복식 수용은 문무왕(文武王) 4년(664)⁶⁵⁾으로, 15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발해의 여자복식에 관한 기록은 문헌에 남아 있는 바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남자복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

거나, 약간 늦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여용이 발굴된 석국은 발해가 두 번째로 도읍을 정한 중경 현덕부 현주의 서고성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다. 발해는 건국기간 동안 다섯 번의 천도를 하였다. 첫 도읍지인 구국(舊國)에서 현주(顯州)로, 현주에서 상경(上京)으로, 상경에서 동경(東京),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복귀하였다. 현주로 천도한 시점은 무왕의 집권 후반기일 가능성성이 크며,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문왕 20년(756) 초에 해당된다⁶⁶⁾. 그러므로 현주에 도읍한 기간은 730년대 후반에서 756년 초까지라고 할 수 있다. 석국 무덤이 서고성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고성에 도읍한 시기의 왕실 귀족의 묘일 가능성성이 있지만, 그 이후의 시기에도 서고성 부근에 귀족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용의 제작을 서고성에 도읍하였던 시기로 한정지을 수는 없겠다. 무왕의 대를 이은 문왕은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후에 당 문화를 수용하고 문치를 실시하는 등 개혁에 더욱 힘썼다. 8세기 초반으로 비정되는 당의 문화요소가 발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발해가 당 문화 수용에 적극 노력한 시기로 보이는 상경 천도(756년 초) 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여용은 발해가 당의 복식문화를 받아들인 후 여성의 복식이 변천해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당 문화의 유입과 중앙집권적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진 문왕대 이후의 유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제작 연대의 상한은 8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V. 맷음말

1998년 길립성 화룡현 석국묘에서 출토한 삼채여용 두 점은 발해시기 여인의 복식착장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당 문화의 흡수에 따라 발해의 복식이 변천해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덤에서 출토된 삼채용 및 배개 등의 제작 배경에는 발해에 사후의 세계를 현실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무덤속에 실생활과 관련된 명기류를 부장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삼채물의 제작배경과 제작

기법에는 중원의 영향을 받았지만, 발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삼채물 제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단 석국묘 출토의 여용을 발해의 복식을 표현하고 있는 자료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복식을 고찰하였다.

여용 두 점이 착용한 유(襦)와 군(裙)은 거의 형태가 같다. 가슴 위를 노출한 단흉(袒胸)의 착수유(羣袖襦)을 입었으나, 긴 군(裙)을 가슴 위까지 끌어올려 여미고 있어 그 것의 형태가 직령(直領)인지 반령(盤領)인지는 분명치 않다. 여용의 의복과 신발은 황갈색과 녹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산화철(황갈색)과 산화동(녹색)이 유약에 침가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실제 착용하였을 의복과 신발의 색채를 이로부터 유추해 내기는 어렵다.

여용 두 점의 머리모양은 다르며, 신발의 형태도 약간 차이가 있다. 여용 1의 머리모양은 학자들 간에 웨타계(倭墮髻), 오만계(烏蠻髻), 발총계(拔叢髻)라 명명된 당(唐)의 머리모양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용 2의 머리모양은 당시 당 시종들의 머리모양으로 많이 등장한 쌍계(雙髻)를 하였다. 둘 다 신 끝이 올라간 리(履)를 신었는데, 여용 2의 신 끝이 더 높이 올라갔다. 그러나, 당시 당의 경우처럼 신 끝이 올라간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여용의 인체 표현은 차분하고 간결하여 성당 시기 여인의 풍만해진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얼굴의 표현에 있어서 얼굴형이 둥글고 통통한 특징은 있지만, 당의 자료에 비하면 다소 평면적이다. 당시 유행한 화장법도 보이지 않으며, 유, 군 위에는 반비(半臂)나 표(表)를 착용하지 않았다. 머리모양, 의복, 신발에 이르는 복식과 인체 표현상의 특징 등에서 당(唐)대 중원의 영향이 많이 보이지만, 굳이 구별되는 특징을 찾는다면 '간소한 차림'이라는 측면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발해는 무왕 인안 4년(당 현종 10년 : 722년)에 당으로부터 금포(錦袍), 금어대(金魚袋)를 사여받은 이후 사절 왕래를 통한 복식교류를 계속해왔다. 무왕의 대를 이은 문왕 대홍무는 즉위 후 당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당 복식을 비롯한 당 문화의 수용은 당시 당의 주변국에서도 진행된 보편적인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해에서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당 복식의 수용은 복식 제도적인 측면과 형태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여용의 복식은 말해 부녀복식이 형태적 측면에서 당의 복식형태를 수용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종적 연장선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부여시기, 그리고 고구려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던 스타일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용이 가능하였다는 추측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언급해둔다.

(논문 진행 및 전시 참관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송기호 교수님과 北京 歷史博物館 科學技術部 조경실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린다.)

참고문헌 및 미주

- 『方言』
- 『釋名』
- 『三國書記』
- 『舊唐書』
- 『新唐書』
- 『唐會要』
- 『大唐六典』
- 『杜陽雜編』
- 『冊府元龜』
- 『中華古今注』
- 東亞考古學會,『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五冊』,東京・京都,1939
- 鳥山喜一・藤田亮策,『間島省古蹟調査報告』,滿洲國 民生部,奉天,1942
- 齋藤俊,『半拉城と他の史跡』,増補復刻,半拉城址刊行會,1978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中國戲劇出版社,1986
- 周汎・高春明 編,『中國歷代婦女裝飾』,上海學林出版社・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1988
- 王維堤,『衣冠古國』,上海古籍出版社,1991
- 沈從文 編著,『中國古代服飾研究』,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1992
- 『吉林省志 文物志』,吉林文史出版社,1994
- 宋基發,『渤海政治史研究』,一潮閣,1995
- 周汎・高春明 編,『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1996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六頂山與渤海鎮』,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7
- 黃河水庫考古工作隊,『一九五六年河南陝縣劉家渠漢唐墓葬發掘簡報』,『考古通信』1957-4
- 王承禮,『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社會科學戰線』,1979-3
- 嚴長鉅,『和龍縣西古城及其附近渤海遺迹調查』,『博物館研究』,1984-1
- 宋基發,『 말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1989
- 정영진,『1988년에 발굴한 북대발해무덤 및 3채그릇』,『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 蓋立新,『寧安縣渤海上京官衙址』,『中國考古學年鑒(1991)』,文物出版社,1992
- 孫機,『唐代婦女的服裝與化粧』,『中國古與服論叢』,文物出版社,1993
- 金玟志,『渤海(698~926)의 服飾에 關한 研究』, 서울대 의류학과 석사논문, 1993. 2
-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吉林省和龍縣北大渤海墓葬』,『文物』1994-1
- 김민지,『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Ⅱ)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青銅俑)을 중심으로-』,『복식』22호, 1994. 5
- 김민지,『인체미인식과 복식형태의 변천 -선사~청대까지 중국 여성복식을 중심으로-』,『복식』32호, 1997. 5
- 郎惠云・三辻利一,『日本出土的唐三彩及其科學研究』,『考古與文物』1997-6
- 馮浩瑋,『唐代渤海國釉陶三彩器初探』,『考古』1999-8
- 『中國文物事業五十年』展覽籌展組,『中國文物事業五十年(1949~1999)』展覽巡禮,『文物』1999-10
- 『中華人民共和國出土文物展圖錄』,朝日新聞社,1973
- 『世界陶磁全集』11 隋・唐, 小學館, 1976
- 上海博物館所藏『中國歷代陶磁展』圖錄,朝日新聞社・西武美術館,1984
- 吳哲夫 總編輯,『中華五千年文物集刊』唐三彩 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臺北, 民國73(1984)
- 吳哲夫 編,『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集委員會, 臺北, 民國74(1985)
- 陝西省博物館 編,『隋唐文化』,香港,中華書局,1990
-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編,『中國博物館叢書 第9卷』,『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文物出版社,1991
- 穆舜英 主編,『中國新疆古代藝術』,新疆美術攝影出版社,1994
- 張鴻修,『中國唐墓壁畫集』,嶺南美術出版社,1995
- 唐昌東,『大唐壁畫』,西安,陝西旅游出版社,1996
- 國家文物局 主編,『中國文物精華大辭典』,陶瓷卷,上海辭書出版社・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1996
- 『中國通史陳列』,中國歷史博物館 圖錄,朝華出版社,1998
- 『中國歷代仕女畫集』,天津人民美術出版社・河北教育出

出版社, 1998

- 『國之瑰寶』中國文物事業五十年(1949-1999) 圖錄, 朝華出版社, 1999
- 『문화일보』 1994년 9월 13일자 13면

1) 전시 도록에는 본문 <그림 2>에 해당하는 한 점이 실렸다.

『國之瑰寶』中國文物事業五十年(1949-1999) 圖錄, 朝華出版社, 1999. p.242

2) 본문 <그림 2>의 俑

“中國文物事業五十年”展覽籌展組, 『“中國文物事業五十年(1949~1999)”展覽巡禮』, 『文物』1999-10 p.1, p.10

3) 『國之瑰寶』, pp.241-243.

4) 그 동안 발굴된 발해삼채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東亞考古學會, 『東京城 -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查』 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五冊, 東京・京都, 1939
烏山喜一・藤田亮策, 『間島省古墳調査報告』 滿洲國 民生部, 奉天, 1942

嚴長錄, 『和龍縣西古城及其附近渤海遺迹調查』, 『博物館研究』, 1984-1

齊藤俊, 『半拉城と他の史跡: 増補復刻, 半拉城址刊行会』, 1978

王承體,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線』, 1979-3

蓋立新, 『寧安縣渤海上京官衙址』, 『中國考古學年鑒(1991)』, 文物出版社, 1992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 『吉林省和龍縣北大渤海墓葬』, 『文物』, 199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5) 吳哲夫 總編輯, 『中華五千年文物集刊』唐三彩 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臺北 民國 73年(1984). pp.309-316

6) 『大唐六典』

“凡磚瓦之作 鄭岳之器 大小高下 各有程準 凡喪葬 則供其明器之屬 別敕葬者供 餘並私備 三品以上九十事 五品以上七十事 九品以上四十事 當墳當野 視明地軸 講馬偶人其高各一尺 其餘皆聲隊與僮僕之屬 戚儀服玩 各視生之品秩 所有以瓦木爲之 其長率七寸(무릇 磚瓦를 만들고 질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大小高下에 각각 정해진 바가 있다. 무릇 壯葬에는 명기류를 함께 넣는데, 葬者에게 넣어주는 것은 따로 勅을 내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준비한다. 3품 이상은 90사, 5품 이상은 70사, 9품 이상은 40사로 한다. 墳野에 묻을 때에는 지축을 보아 한다. 講馬와 偶人은 그 높이가 1척, 그 나머지 皆聲隊와 僕僕, 戚儀服玩은 살아서의 品秩을 보아 瓦木으로 만드는데 그 길이는 모두 7촌이다”)

『唐會要』卷 三十八 葬

“玄宗 開元二十九年 勅令…古之送終 所尚乎儉 其名器 墓田等 令于舊數內遞減 三品以上名器先是九十事 請減至七十事 五品以上先是七十事 請減至四十事 九品以上先是四十事 請減至二十事 庶人先無文 請限十五事 皆以表瓦爲之 不得用木及金銀銅錫(현종 개원 29년에 칙령을 내리기를…옛날에는 죽은 이를 보냄에 검소함을 중상하였다. 明器, 墓田 등은 옛 수량 내에서 체감하도록 하라. 3품 이상 명기는 예전에 90사이었으나 감하여 70사로 하게 하고, 5품 이상은 예전에는 70사이었으나 감하여 40사로 하게 하며, 9품 이상은 예전에는 40사이었으나 20사로 감하도록 하라. 서민은 예전에 정한 것이 없었으나 15사로 한정하도록 한다. 모두 表瓦로 만들며, 木이나 金銀銅錫으로는 하지 못한다”)

7) 중국 西安의 中堡村 출토의 세 여용과, 鮑于庭墓 출토 여용, 小上門村 출토 여용은 복식, 헤어스타일, 인체 표현 기법이 매우 비슷하다. 또, 일본 永青文庫와 大和文化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唐 女俑 두 점의 형태도 거의 같다.

8) 馮浩璋, 『唐代渤海國釉陶三彩器初探』, 『考古』1999年第 8 期, pp.74-79.

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앞 책, p.104

10) 山坡一雄 『渤海三彩和唐三彩的化學研究』, 馮浩璋논문 p.79에서 재인용

11) 邱惠云・三辻利一, 『日本出土的唐三彩及其科學研究』, 『考古與文物』1997-6

12) 李紅軍, 『渤海遺地和墓葬出土的三彩器研究』, 『文物研究』第 10 期

馮浩璋, 앞 논문, p.80에서 재인용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앞 책, p.104

14) 唐 蘇弼, 『杜陽雜編』卷 下

“武宗 會昌元年(841) 渤海貢瑪瑙柜 紫瓷盆 … 紫瓷盆 容量半斛 內外通澄 其色純紫 厚寸余 舉之則若鴻毛”

15) 馮浩璋, 앞 논문, pp.79-80

16)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 앞 논문, pp.37-38, pp.40-41.

북대 7호묘(M7)에서 三彩항아리 1점, 三彩그릇 1점 이 발견되었다.

17) 정영진, 『1988년에 발굴한 북대발해부두 및 3채그릇』, 『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p.9

18) “小童持箱 內有故青裙 白衫子 緑被子”

19) “黃羅銀泥裙 五紗羅銀泥衫子 單絲紅地銀泥被子 盖益都之盛服也”

20) 孫機, 『唐代婦女的服裝與化粧』, 『中國古與服論叢』, 文物出版社, 1993. p.178

21) “繡絲衫子柳花裙 空菩沈香漫火熏”

22) “衫薄偏恰日 裙輕更畏風”

23) 『新唐書』卷 二十四 志第十四 車服

- “婦人裙不過五幅 曳地不過三寸 襦袖不過一尺五寸”
- 24) “新帖繡羅襦 雙雙金鵲鵠”
- 25) 『方言』第四 “或謂之禪襦”，晋 郭璞 注 “今或呼衫爲禪襦”
- 26) 『釋名』釋衣服 “衫 芷也 芷末無袖端也”，畢沅 疏証 “蓋短袖無祛之衣”
馬縞，『中華古今注』布衫 “三皇及周末庶人 服短褐襦服深衣 秦始皇以布闋勝 名曰衫”
- 27) 唐을 初唐(高祖 武德 元年 : 618 ~ 咸宗 景雲 3年 : 712), 盛唐(玄宗 開元 元年 : 713 ~ 代宗 永泰 元年 : 765), 中唐(代宗 大曆 元年 : 766 ~ 敬宗 寶曆 2年 : 826), 晚唐(文宗 太和 元年 : 827 ~ 哀帝 天祐 4年 : 907)의 4기로 나누어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문학사에서 唐詩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되어 당대 문화의 전반을 시기구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28) 孫機, 앞 논문, p.188
- 29) 王維堤, 『衣冠古國』,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 94-97
- 30) 『舊唐書』卷 四十五 志 第 二十五 輿服
“武德貞觀之時 宮人騎馬者 依齊隋舊制 多著羃羅 雖發自戎夷 而全身障蔽 不欲途路窺之 王公之家 亦同此制 永徽之後 皆用帷帽 拖裙到頸 漸爲淺露 尋下敕禁斷 初雖暫息 旋又仍舊 咸亨二年又下敕曰 百官家口 咸預士流 至於衙路之間 豈可全無障蔽 比來多著帷帽 遂棄羃羅 曾不乘車 別坐椅子 遍相倣效 浸成風俗 過爲輕率 深失禮容 前者已令漸改 如聞猶未止息 又命婦朝謁 或將馳駕車 既入禁門 有虧肅敬 此並乖於儀式 理須禁斷 自今已後勿使更然 則天之後 帷帽大行 羃羅漸息 中宗卽位 宮禁寬弛 公私婦人 無復羃羅之制 開元初 從駕宮人騎馬者 皆著胡帽 艷粧露面 無復障蔽 士庶之家 又相倣效 帷帽之制 絶不行用 俄又露髻馳騁 或有著丈夫衣服靴襦 而尊卑內外 斯一貫矣”
- 31) 이 글에서는 곧은 깃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32) 둑근 깃을 지칭하는 용어로 盤領, 圓領, 團領을 함께 고려하였다. 曲領은 당시 특정 품목을 지칭한 용어로 사료되어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曲領에 관해서는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6. p.140 참조
- 33) 陝西省博物館 編, 앞 책, p.241
- 34) 陝西省博物館 編, 뒷 책, pp.186-187
- 35) “細語人不聞 北風吹裙帶”
- 36) 『吉林市志 文物志』, 吉林文史出版社, 1994. p.235
- 37) 1994년 9월 13일자 문화일보 13면
- 38) 穆舜英 主編, 앞 책, p. 204
- 39) 『國之瑰寶』, p.201.
吳哲夫 編, 앞 책, p.249
- 40) 陝西省博物館 編, 『隋唐文化』, 中華書局, 香港, 1990. p.109, p.116
- 41) 吳哲夫, 앞 책, p.1, p.4
- 42) 陝西省博物館 編, 앞 책, p.241
- 43) 吳哲夫, 앞 책, p.2
- 44) “唐末婦人梳髻謂‘拔叢’以亂髮爲胎 垂障于目”
- 45) 周錫保, 앞 책, p.218
- 46)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1992. p.264
- 47) 穆舜英 主編, 『中國新疆古代藝術』,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994. p. 192
- 48) 陝西省博物館 編, 앞 책, p.116
- 49) “寶釵新梳倭墮髻”
- 50) 孫機, 앞 논문, pp.193-194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 下 p. 243 에서도 西安中堡村 출토 여용의 머리모양을 倭墮髻라 하였다.
- 51) 周汛·高春明 編,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p.344 및 周汛·高春明 編,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學林出版社·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88. p. 22
- 52) “某之行無不濟者 乃入閨房 飾其行具 梳烏蠻髻 鑲金鳳釵 衣紫綉短袍 系青絲輕履”
- 5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I)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青銅俑)을 중심으로-」, 『복식』22 호, 1994. 5. p.99 참조
- 54) 周汛·高春明 編, 앞 책, 1988. p.36, 40.
- 55) 孫機, 앞 논문, pp.187-188
- 56) 『舊唐書』卷 四十五 志 第 二十五 輿服
“武德來 婦人着履 規制亦重”
- 57) 『新唐書』卷 二十四 志第十四 車服
“(文宗詔)婦人衣青碧緹 絵帛 細平頭小花草履或高頭履 而禁高髻險粧去眉開額及吳越高頭草履”
『冊府元龜』卷 六十一
“其諸綵帛綾或高頭履及平頭小花草履卽任依舊”
- 58) 陝西省博物館 編, 앞 책, p.123
- 59) 黃河水庫考古工作隊, 「一九五六年河南陝縣劉家渠漢唐墓葬發掘簡報」, 『考古通訊』1957-4. p.18
- 60) 김민지, 「인체미인식과 복식형태의 변천 -선사~청대 까지 중국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2호, 1997. 5. pp.233-235
- 61) 『冊府元龜』卷 九百七十五 象異 二
“(開元)十年 … 十一月 辛未 渤海遣使其大臣昧勃計來朝 並獻鴈 授大將軍 賜錦袍金魚袋 放還蕃”
- 62) 金玟志, 「渤海(698~926)의 服飾에 關한 研究」, 서울대 의류학과 석사논문, 1993. 2. pp.7-8, pp.11-15 참조
- 63) 『三國史記』卷 五 新羅本紀 五
“春秋又請改革服以從中華制於是內出珍服賜春秋及其從者 … 三年春正月始服中朝衣冠”
- 64) 『三國史記』卷 六 新羅本紀 六 文武王 四年 正月
“下教婦人亦服中朝衣裳”
- 65)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pp.95-99